

# 한중 출판교류의 현황과 향후 방안

## 변화하는 중국 출판시장과 비전 소개

### 양국 출판 산업의 협력 확대 모색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형두)는 지난 11월 11일 50여명의 출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 출판인 초청 세미나'를 출협 4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윤형두 출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2년 베이징도서전의 주빈국으로 빈틈없는 준비를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격변기를 맞고 있는 출판업은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라 생각하고 보다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 지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중 출판 교류의 현황과 향후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대표 대학출판사인 인민대학출판사의 허야오민 사장과 명차오 부사장이 각각 발제자로 나와 자사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출판시장 현황 및 비전, 그리고 한중 출판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출판 교류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중국 출판계의 현황과 향후대책' 과 '한중 출판계의 협력 방안' 을 요약, 소개한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 중국 출판계의 현황과 향후대책

중국 인민대학출판사 허야오민 사장

중국출판업의 특징은 '안정된 발전과 거대한 잠재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2011년 중국 정부의 공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전국에서 출간된 도서는 모두 31만8000종으로, 2009년에 비해 8.8%가 증가했다. 총 인쇄 부수는 71억 4천만으로 2009년에 비해 1.4% 증가하였으며 정가 총액은 930억 9천만 위안으로, 9.8%가 증가했다. 1인당 5.3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1인당 도서 구입 비용은 약 71위안으로 파악 됐다. 2010년에 전국적으로 도서, 기간잡지, 신문, 시청각제품, 전자출판물, 디지털출판물, 인쇄, 발행 분야 별 산출액은 127조 위안에 이르러 2009년에 비해 19.0%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중국의 도서출판 종수와 출판량은 세계 1위이며 전자출판, 인터넷학술출판 총량은 세계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4월에 발표된 '전국 인구 일반 조사 주요 데이터 공보'에 의하면 중국의 현재 인구는 13억 7천만 명,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1억 2천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중국의 출판 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21세기에 들어선 이래 중국출판업은 지역, 부문, 산업 등의 구분을 뛰어넘어 구조재조정을 정부 주도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문화적 창의성, 영화 TV물의 제작, 출판발행, 인쇄 복제, 광고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존의 고유한 분야를 뛰어 넘는 발전을 실현토록 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신문출판 영역에 대해서도 구조 재조정을 하거나 집단화를 추진하여 출판미디어업의 거대기업을 만드는데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0년까지 비준을 받은 각 신문출판그룹은 모두 120그룹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출판그룹이 37곳, 신문그룹이 47곳, 이슈그룹이 29곳이며 인쇄그룹도 13곳이나 된다. 이들 그룹들은 자산 총액과 영업수입이 도서출판과 도서발행 부문에서 73.5%와 53.8%에 이르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출판도 중국에서 새로운 산업과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로 각광받고 있다. 디지털 출판은 2010년에 총 매출액 1조 518억 위안에 달해 전통적인 도서 생산액을 뛰어넘었다. 또한, 그 증가 속도도 매우 빨라 2009년도에 비해 31.6%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15년에는 중국의 디지털출판 총생산액이 신문출판 총생산액의 25%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0년에 이르면 전통 출판 단위는 디지털출판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출판은 현재 전통출판의 외적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많은 인터넷 회사가 이미 판권 경영과 인터넷 출판 영역에 진출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중국 이동통신은 디지털화된 독서사업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중국 출판업계는 콘텐츠 제공자가 될 것인지, 디지털출판의 유통과 기술을 결합시킬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물론 경쟁력을 갖춘 출판기업들은 독자적인 방법을 모색하거나 다른 출판사와의 연합으로 디지털출판 유통부문에서 또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중 출판계의 협력 방안

인민대학출판사 명차오 부사장

현재 중국에는 550개의 출판 단위가 있으며 대학출판사는 103개가 있다. 중국인민대학출판사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인문사회과학 분야, 경제학, 신문학, 재정금융, 공상관리,

정치학, 법학 방면 등에서 중국에서 일류를 자처한다. 특히, 인문사회과학 출판에서 중국 제일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

지난 50여 년 간의 인민대학출판사는 각종 분야에서 총 1만 6000여 종의 책을 출간했으며 기간잡지, 녹음, 녹화 등 전자물과 인터넷 출판물 등 멀티미디어를 겸영하는 대형 종합 출판사로 성장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성장률은 매년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에 출간한 신서는 2759종으로 2000년의 774종보다 3.6배에 달하며 모든 도서정가의 총액은 7.25억 위안으로 2000년의 3.5배에 달했다. 총 자산은 6.19억 위안으로 2000년 9296만 위안의 6.7배에 이르렀다. 2000년부터 총 1.98억 위안의 이윤을 창출한 인민대학 출판사는 현재 10여 개의 출판 지사, 4개의 출판센터, 5개의 합작 출판 회사, 5개의 판매서점, 7개의 유통 지사를 거느리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출판사 직원은 533명, 석사이상 학력을 가진 직원 171명, 박사학위 소유자가 24명이다.

인민대학출판사는 지난 2008년 디지털출판센터를 설립했으며 현재 2004년 이후 5689 건의 디지털출판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비교적 정확하게 디지털출판권 조회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으며 현재 조판이 완료된 문건은 1만600종, 입고되어 있는 조판문건은 9600종에 달한다. 올해 말까지 디지털 출판 수익은 300만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한중문화교류와 관련해서 한국출판계는 어떤 유형의 출판사에 관계없이 합작을 도모할 수 있는 상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범우사와 인민출판사의 사례를 들 수 있으며 서로 많은 출판물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은 많은 출판사가 상대방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있는 제목의 책도 많다. 앞으로 교류 왕래를 확대해 서로의 이해를 넓혀 가면서 교류의 방향을 설정해 공동으로 도서전에 참가하거나, 연계와 합작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정부는 외국과의 문화교류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매년 중국과 외국의 판권무역의 수량은 1~2만 종에 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출판사가 외국의 우수한 문화를 중국에 소개하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것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정부는 해당업체들에게 번역비, 출판비, 인쇄제작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출판업계도 중국정부의 지원 자금을 받아 한국이 좋아하는 중국도서를 많이 한국에 소개해 줄 기회를 갖게 될 기 바란다. ☺